

【주간 포커스】

금융산업 개편과 보험회사의 대응

오영수 선임연구위원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운 성장을 위해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의 확대와 비은행업무 영역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시장에 의한 금융산업 개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동의 와중에서 보험회사는 새로운 사업모형 개발과 경영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경영전략 개발과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 최근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편이 마무리되고, 농협금융지주의 출범이 예상되면서 향후 경영전략과 금융산업 개편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일부에서는 메가뱅크¹⁾ 또는 대형화를 주장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규모보다는 효율성이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글로벌화와 비은행업무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나타나고 있음.
 - 산은지주의 경우 향후 국내은행의 인수·합병 이후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지닌 메가뱅크로 육성한다는 계획임.
 - 이에 반해 신한지주, KB지주, 우리지주 및 하나지주는 메가뱅크에 부정적이며 오히려 내실화 또는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²⁾.
- 한편,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아직 정식으로 출범하지는 않았지만 농협은행 등의 영업망이나 자산규모 등을 볼 때 금융산업 개편에 큰 변화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현재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여전히 은행 중심의 사업구조에 머무르고 있어 비은행업무로의 다변화는 취약한 상황이며, 글로벌화의 추진도 미흡한 실정임.

1) 메가뱅크(Mega Bank)란 초대형은행을 말하는데,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 과정에서 화두로 떠오른 개념임(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시사경제용어 참조). 그 후 메가뱅크론은 산은지주와 우리지주를 합치는 방안, 유사기능을 하는 정책금융기관을 재편하여 대형화 하는 방안 등으로 나뉘고 있음.

2) 이들 금융지주회사들도 메가뱅크가 아닌 대형화 자체를 절대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각 회사들이 처한 상황이나 전략적 고려 등에 따라 대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함.

- 2010년 6월말 자산 기준으로 산은, 신한,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은행계 지주회사 전체가 주력 자회사의 자산 비중이 90%를 상회하는 등 은행업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국내은행의 초국적화지수(Trans-nationality Index)는 4.3%로서 주요 선진국의 1/10 수준에 불과함.
 - 국내은행의 초국적화지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평가도 2010년 6월말 5등급으로 크게 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음.

<표 1> 금융지주회사의 주력 자회사 비중

(단위: 10억원, %)

	산은	신한	우리	하나	KB	SC	씨티
총자산(연결)	167,742	266,801	298,380	158,404	268,712	77,009	59,160
총자산 (주력자회사)	124,651	217,254	234,633	143,302	264,862	75,679	57,831
비중	74.3	81.4	78.6	90.5	98.6	98.3	97.8

주: 2010년 6월말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향후 금융환경 변화와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금융산업의 경우 상업은행보다는 비은행업의 성장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인구 고령화, 개인금융자산 증가, 고객수요 다양화, 리스크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요인에 의해 국내시장에서는 개인고객을 상대로 한 자산운용업, 자문업, 보험업 등 비은행업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됨.
- 또한 금융회사의 글로벌화 정책과 개인투자자의 투자지역 다변화의 영향으로 해외투자자와 관련한 금융업의 성장이 예상됨.
-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그간 투자은행, 자산운용회사, 대체투자기구, 보험회사 등이 금융산업 성장을 주도해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통적인 상업은행의 영향력이 다소간 확대될 전망이다.

□ 정부는 메가뱅크보다는 효율성 제고를 중시하나, 은행대형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정부는 규모만 키우기보다는 금융산업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재편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2010년 2월 금융분야 3개 연구기관이 발표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에 따르면 아시아의 금융리더가 되기 위한 일환으로 대형화·글로벌화·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정책이 건의되었음.

□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주요 금융지주회사들은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으로 대형화, 글로벌화, 비은행업무 강화 등의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금융산업을 개편해갈 것으로 전망됨.

- 일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은행의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전략을 추구하여 글로벌화 및 비은행업무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할 것임.
- 글로벌화 전략은 주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인 은행이 대형화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시장의 과당경쟁을 피하여 성장하기 위해서 선택할 것임.
- 비은행업무 강화를 위해서는 투자은행업, 보험업, 자산운용업 등의 분야에서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보험산업의 경우 메리츠화재가 보험지주회사로 전환하였지만 아직 그룹화를 통한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고 있지 못하고,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고는 금융산업 개편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음.

- 대형 보험회사들이 그룹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와 같은 보험지주회사 규제 하에서는 보험지주회사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장점이 크지 않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음.
- 그와 함께 경영권보호, 산업자본 부문과의 관계 정립 등으로 인해 지주회사 전환을 계획했음에도 빠르게 진전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음.
- 금융지주회사 계열의 보험회사가 아닌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한계 등의 이유로 대형화 또는 그룹화를 추진할만한 여건에 있지 못함.

□ 보험회사들은 금융지주회사 중심으로 금융업종별 인수·합병 등 금융산업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다음과 같은 경영전략적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먼저 금융지주회사가 계열 보험회사의 대형화를 추구함에 따라 기존 생명보험자회사와의 인수·합병 전략을 구사함과 더불어, 신규로 손해보험회사의 인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음.

- 대형보험회사의 경우 대형화 또는 그룹화 추진과 동시에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경영전략을 선택할 것이 예상됨.
 - 대형보험회사의 경우 수세적 위치에서 벗어나 자산운용업, 신탁업 등의 분야로 업무를 확장하는 전략을 추진함과 더불어, 기존에 추진해온 글로벌화 전략의 내실화와 신규지역 진출 확대를 꾀할 것으로 예상됨.
-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 특화전략을 취하면서 성장을 추구할 것이나, 일부는 인수·합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금융산업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큰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대형 보험회사는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최적의 사업모형을 개발하여 보험 이외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금융회사의 그룹화 또는 계열화를 적극 추진하고, 국내시장의 경쟁압력에 대응하여 내실 있는 해외진출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소형 보험회사는 전문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 효율성을 제고함과 더불어 적절한 제휴전략 등을 기반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KiRi